영생문화의 창달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838호

# 

자유율법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 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The Seungni Shinmun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 는 '오징어 게임'! 매스컴에서 온통 '오징 어 게임'이야기뿐이다. 넷플릭스를 시청 할 수 있는 전 세계 83개국에서 1위를 차 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 6가지 게임과 6숫자

아마 줄거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 지만 그래도 만에 한 명을 위해 친절을 베 풀어 보자. '오징어 게임'은 엄청난 빚을 짊어진 게임 참가자 456명이 상금 456억 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일종의 서 바이벌 데스 게임을 다룬 9부작 드라마다. 거기에는 우리 한국 고유의 6가지 게임이 등장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 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오징어 게임이다. 게임 참가지들은 위의 6 가지 게임에서 승자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패자는 여지없이 죽게 되어 있다. 6가지 게임을 통과하여야만 살아서 상금 을 받는다는 6숫자의 상징이 매우 흥미롭 다.

극본을 쓴 황동혁 감독이 전혀 의도하 지 않았겠지만 6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잘 아는 승리제단 식구들의 입장에서 보 면 무언가 깊은 뜻이 있어 보인다. 6이라 는 숫자는 원래 마귀의 숫자이다. 마귀의 숫자라는 의미는 마귀는 사망의 신이므로 6이 들어있는 것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는 뜻이다.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에 6숫 자가 둘이나 들어있다. 물론 여기에 나라 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나 인물을 기리는 현충일을 폄하하려는 뜻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다만 숫자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다.

#### 10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흥미로운 점은 또 있다. 우리는 어떤 게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할 때도 술래가 쳐다볼 때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죽었다고 말하고 그는 게임에서 탈락된 다. 술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 칠 때 그 속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게임 참가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느리 거나 빠르게 외울 수 있다. 그 10마디를 외 울 때만 오직 참가자들은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꼼짝 못하고 얼음이 되어 있어야 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10글자이다. 10은 하나님, 정도령, 부처님을 뜻한다. 십 자가의 10,절의 卍도 10,정도령을 뜻하는 궁을십승도 10을 뜻한다.

#### 무궁화는 구세주를 뜻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무궁화 꽃의 상징 에 관한 것이다.

무궁화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피는데 꽃이 절정을 이루는 때는 8월이다. 성경 에는 무궁화를 사론의 장미(the rose of Sharon)라고 하고 있다. 물론 영어시전에 임에서 죽었다거나 살았다고 표현한다. 서도 무궁화를 the rose of Sharon이라고 한다. 즉 "주님은 사론의 장미요 산곡에 백합화이다(아가서 2:1)"에서 사론의 장 미는 무궁화를 말하는데 주님을 상징하 는 꽃이라는 것이다.

무궁화(無窮花)라는 글자에 영생의 뜻 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무궁화는 글자 그 대로 영원무궁토록 피어나는 꽃이다. 꽃 나무에서 하나의 꽃이 피었다 시들면 그 옆의 꽃이 다시 피어나고 이렇게 반복해 서 피어나는 꽃이다. 영생을 상징하는 주 님과 무궁화. 주님은 곧 무궁화요 무궁화 는 곧 주님이다.

#### 5숫자를 갖춘 무궁화

무궁화는 구세주를 상징하는 꽃이다. 무궁화는 5수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꽃잎 이 다섯이고, 꽃받침이 다섯이며, 꽃술도 다섯이다. 5수는 구세주를 나타낸다. 보통 꽃과 다르게 5수를 갖춘 무궁화. 이는 구 세주를 웅변하고 있다.

승리제단은 1985. 7.22 국조숭봉총화협 회를 세워 무궁화와 무궁화 사상을 널리 선양하였었다. 당시 김병언 선생이 승리 제단에 입문하여 무궁화의 중요성을 설파 하였는데 이는 조희성 구세주의 뜻과 딱 들 어맞았고 승리제단에서는 무궁화 심기 운 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1986. 49 서울 한남 대교 주변에 무궁화를 심었으며, 동년 5.3 부산지부, 7.12 전북지부를 결성하였다. 이 때에 맞물려 전국적으로 무궁화선양 단체 들이 생겨났던 것은 무궁화(영생)를 상징 하는 구세주가 한국에 출현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역사였었다.

#### 무궁화는 우리민족이 구라파에서 이동 해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내용은 무궁화가 우리 민족이 구라파에서 이동해 왔음을 알려 주는 꽃이라는 점이다. 무궁화 의 학명이 Hibiscus syriacus이다. 이는 시리 아(syria) 나라가 무궁화의 원산지임을 알 려주는 이름인데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중동이 원산지인 무궁화가 많이 심어져 있 었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구당서 신라 전(新羅傳)에는 신라를 '근화향'(槿花鄉, '무 궁화의 나라'라는 뜻)으로 소개하였으며 산 해경에서는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아침에 꽃이 피고 저녁에 꽃이 지는 훈화'로 소개 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많이 피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이 원산지가 되는 시리아 나라를 거쳐 동방으로 이주할 때 씨 앗이나 묘목을 가져와서 심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들은 애국가를 부를 때도 무궁 화라는 단어를 접한다. '무궁화 삼천리 화 려강산'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우리에게 친 밀한 무궁화가 구세주를 상징하는 꽃이라 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 다. 승리제단 신도들은 무궁화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어 무궁화를 뜻하는 구세주가 한국에 출현하여 영생의 역시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 려주어야 하겠다.\*

#### 도 백길 천길 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아 는 까닭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묵묵히 땅을 파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장 노다지를 캐겠 다는 심정으로 근시안적인 철학을 가지 고 이 제단을 나오는 자는 결코 구원과 상관이 없다.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금을 캐는 사람은 당장은 이익이 없어

캐고 캐고 또 캐면 마지막에는 놀라운 보화를 캐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영생의 보화가 멀리 내다보 이므로 어려서부터 애를 쓰고 기를 쓰며 백 번, 천 번, 만 번 넘어지면서도 넘어질 적마다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달리고 또 달렸던 것이다.\*

#### 승사 칼럼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16〉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탄다. 외로 움을 느끼는 정도가 깊어지면 주체하 기 힘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콧물로 범 벅이 된다. 그러면 그 외로운 감정은 피 (血)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어 건강을 해 친다. 나이가 들면 그 외로움이 더욱 잦 아진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 이 많다. 가정을 꾸리면 대소사에 대해 배우자와 의논하고 인생의 험로를 같 이 위로하며 나아가기에 외로움이 반감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귀여운 강 아지와 같이 꼬물거리며 성장하는 아이 들을 보노라면 외로움이 잠시나마 멀리 달아난다.

#### 결혼으로 외로움 해결 못해

그러나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혹은 자식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 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 배우자가 시랑덩어리가 아니라 원 수덩어리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의견 이 상충하여 서로 쳐다봐도 싫은 사이 가 된다. 그렇게 되면 홀로 살던 생활보 다 더 힘든 삶이 시작된다. 결국 외로움 은 사람을 더욱 괴롭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젊은 나이에 세 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다. 아주 심각 한 일임에 틀림없다.

승리제단 사람들은 외로움이 찾아들 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는다. 뭔가 할 일을 찾아 분주히 설치다 보면 외롭 다는 생각이 멀리 도망가는데 그 방법 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외로움을 퇴치 한다. '외로움의 감정'을 적으로 간주하 고 자신의 마음에서 외로움을 뽑아내는 작업을 한다. 다음은 마음속에 침입한 '외로움'을 뽑아내는 멸마작업의 내용이 다.

"외로움 음란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 멸소탕"

이렇게 하면 외로움을 느끼고서 침울 하던 마음이 사라진다. 거짓말처럼 시라 진다. 가만히 놔두고 거기에 고스란히 당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금세 싱글벙글로 돌아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 람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세밀한 설명 을 드리고 싶다.

외롭다는 감정은 지구상 그 많은 인구

중에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기에 나오는 감정이다. 그런 데 실제를 따져보면 혼자가 아니다. 주 변에는 너무도 많은 '나 자신'이 존재한 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포함해서 눈 앞 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 로 '나 자신'이기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째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 두 '나,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지 그 설 명을 드릴 차례다.

### 인류를 하나로 생각하면 외로움 없어

사람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불 문하고 또한 국적이 어디인지를 불문하 고 누구든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남'이 없어진다. 본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다. 허름한 복장을 한 사람도, 서양의 양복을 잘 차려입은 사람도 하 나님이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인 줄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인간의 근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나'의 입장에서 살아가면 '남'이 없어 지고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기에 외로 움을 느낄 감정이 찾아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되어 살아간다니까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 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 고 그 성격이 어떤지 전혀 모르면서 하 나님이 되어 살아간다니까 가재미 눈을 하고 쳐다본다. '하나님'에 대한 엉터리 고정관념이 가득하면서 정작에 그것을 본인이 모르기에 그렇게 이상한 눈을 하고 본다.

외로움에 당하면서 쓸쓸히 살다가 아 무도 모르게 사라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본인은 승리제단의 승사로서 '외로움' 정도는 아주 퇴치하 기 쉬운 적으로 여긴다. 일년에 한두 번 쳐들어올까 말까 하기에 그렇다. 외로움 을 쉽게 퇴치하는 노하우에 대해 더 많 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안준영 / 호주 시드니제단 책임승사 0415 727 001 email: dap21b@gmail.com

## **不然其然**(불연기연)

수운 최제우가 한문으로 쓴 동학의 기 본 경전이 동경대전이다. 포덕문(布德文)・ 동학론(東學論)・수덕문(修徳文)・불연기 연(不然其然)의 네 편으로 이루어져 있 다. 먼저 네 편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다 음에 수운선생이 체포되기 한달 전 1863 년 11월 중순에 지으신 「불연기연(不然其 然)」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하여 일상에 서 겪는 수많은 '불연(不然)'이 '기연(其然)' 으로 온전히 풀이되고 더불어 체득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본

그럼 먼저 집필자 조용일씨에 의해 『동 경대전』이란 제목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에 등재된 내용을 소개한다.

#### 동경대전 [東經大全] : 동학의 제1대 교 주 최제우(崔濟愚)가 지은 순한문체로 된 동학의 경전

제2대 교주인 최시형(崔時亨)이 1880년 5월 9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에 경 전간행소를 설치하여 그해 6월 14일에 완 간했다. 체제는 각 판본마다 약간의 차이 가 있으나 〈포덕문 布德文〉・〈논학문 論學 文〉・〈수덕문修德文〉・〈불연기연不然基 然)의 4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외 축 문(祝文)・입춘시(立春詩)・강시(降詩)・좌 잠(座箴)・화결시(和訣詩)・탄도유심급(歎 道儒心急)・결(訣)・우음(偶吟)・팔절(八節)・ 제서(題書)·영소(詠宵)·필법(筆法)·통문

(通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덕문〉은 1861년 최제우가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선국사(善國寺: 또는 용천 사)에 들어가 한 암자를 '은적암(隱寂庵)' 이라 이름짓고 그곳에서 수도하면서 지 은 것으로 525자의 한문으로 되어 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각자위심(各者爲心) 의 상태에 빠져 천명을 돌보지 않고 천리 에 순종하지 않음을 개탄하면서 천주교 의 잠입과 서세동점을 간파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서학'에 대항해 '동학'을 선포하 는 보국안민(輔國安民)・광제창생(廣濟蒼 生)의 정신과 이 도를 천하에 널리 전파해 야만 하는 당위성이 잘 나타나 있다.

〈논학문〉은 동학의 교리가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총 1,338자로 되어 있다. 1860년 4월 5일 천주로부터 도를 받 는 종교체험 과정이 묘사되어 있으며, 포 덕을 위해 마련된 21자 주문의 뜻이 유학 자와의 문답으로 해명되어 있고, 천지조 화의 무궁한 운수와 천도의 무극한 이치 가 설명되어 있다.

〈수덕문〉은 1862년 각지의 교도들에게 수덕에 힘쓸 것을 당부한 글로 1,060자로 되어 있다. 동학의 극의(極意)는 '수심정 기(守心正氣)'의 4글자에 있으므로 하늘 조화의 참된 마음을 공경하고 믿을 것을 명하고 있다. 〈주역〉의 괘에서 대정수(大 定數)를 살피고 하(夏)·은(殷)·주(周) 3대 에 걸쳐 하늘을 공경한 이치(敬天之理)를 자세히 외우며, 궁을기형(弓乙其形)의 불 사선약(不死仙藥)을.. – 2면에서 계속



구세주의 말씀은 이제 그대로 모두 이루어진다 인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5대공약을 했고 현재까지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맡김으로 승리하라!